"무안공항 활성화 특단대책 필요"

국감 의원들 전남도 국감서 지적

항공사업자·여행사 재정 지원 한계

광주공항과 상생 방안도 논의 돼야

오는 11월 8일 개항 예정인 무안국제공항의 조기활성화 방안이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나 공항이용 여행상품 개발 등 소극적인 대책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 논란과 관련해 광주와 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0일 전남도청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전남도가 추진하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이 지극히 소극적이어서 실제 공항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활성화 방안이 ▲무안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정 ▲공항이용 여행상품 개발 ▲외국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 등 항공사업자와 여행사에 대한 재정지원 위주의 단기대책에 편중돼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관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 논란과 관련, 광주와 전남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한나라당 최규식 의원은 "무안국제공항으로 국제선을 이전하는 데 대해 광주시민들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생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도 무안공항 개항 이후 여객과 화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광주공항의 국제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광주·전남 상생차원에서,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가 완공되기 전까진 국제선 기능을 광주공항에 존치하는 쪽으로 광주시장과 협의를 했다"고 답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수도권 집중 반대 '자전거 투쟁'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등 13개 비 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균형발전협의회'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기 위해 조직한 '자전거 투쟁단'이 30일 광주시청 앞 광장을 출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대구에서 출발한 이들은 전주, 대전을 거쳐 다음달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지역균형발전 1천만 국민대회'에 합류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 '셀레늄 쌀' 항암효과"

순천·별량 등 5개 지역 농협 시험 재배 연구

순천·별량·흥양·보성·강진 등 5개 지역 농협이 재배한 '셀레늄 쌀'의 항암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5개 지역농협이 참여한 '전남친환경 클러스터'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셀레늄 쌀'의 항암효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경희대 약학대학 정선현 교수 연구팀이 이들 5개 지역과 김포에서 재배 시험을 마친 셀레늄 쌀의 효능 연구 결과 설명했다.

정 교수팀에 따르면 셀레늄 쌀을 통해 한국인이 하루 평균 섭취하는 셀레늄 양의 5~50배를 쥐에게 먹인 결과 독성 반응은 없었고, 지방간 수치가 30% 정도 떨어졌다. /박치경기자 unipark@

"광주공항 국제선 꼭 존치를"

광주시의원들, 건교부 장관 만나 입장 전달

강박원 의장을 비롯한 광주시의원들은 30일 건설교통부를 방문, 이용섭 장관을 만나 광주공항 국제선의 무안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 "국제선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강 의장은 "광주시가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변했고, 민주평화도시이자 문화중심도시로 발전하여 국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광주시민들의 노력으로 취항된 국제선을 가져가게 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가서 장관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너무 좁다"면서 "국가와 양 시·도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군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광주시민들이 소음문제로 고통을 겪어온 만큼 국제선 이전과 동시에 이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는 국방부와 협의해서 해결점을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전군표 청장 피내사자 신분 소환

검찰, 내달 1일께 … 현직 국세청장으론 처음

"전 청장이 상납진술 말라 지시" 진술도 확보

전군표 국세청장이 현직 국세청장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전군표 청장의 수뢰혐의를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전 청장을 이번주 안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전 청장을 상대로 정상곤(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 청장을 이번주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키로 하고 이를 전 청장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세청장이 검찰에 소환되기는 전 청장이 처음이다.

정 차장검사는 "개인적인 비리이긴 해도 현직 국세청장을 수사를 위해 소환하게 돼 착잡하다"고 소환방침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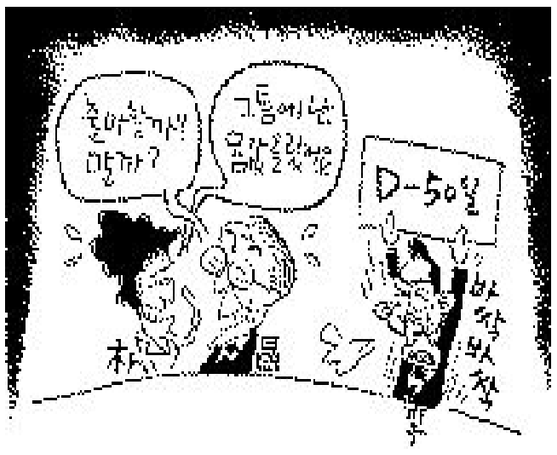
정 차장검사는 소환일시를 밝히지 않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방문이 있는 31일을 피해 내달 1일 오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주 이병대 부산국세청장을 소환 조사해 "전군표 청장의 지시로 정상곤 전 부산청장을 만나 '상납 진술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병대 부산청장과 정상곤 전 청장의 면담은 지난달 부산지검 접견실에서 이뤄졌는데 이에 앞서 이 부산청장이 정 전 청장과의 면담 주선을 직접 검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역시 敵은 내부에 있다

"신정아 감독 선임 관련 변양균과 통화"

한갑수씨 국감서 첫 시인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 재단 이사장이 신정아씨를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으로 선임한 것과 관련,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그러나 변 전 실장으로 부터 신씨 감독선임과 관련 청탁을 받아 임명했다는 사실은 부인했다.

한 전 이사장은 신정아 파문 이후 변 전 실장과의 전화통화 사실 자체를 단 한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 전 이사장은 30일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와 "인사부탁을 하려면 최소한 3분 50초에서 5분 가량 소요된다"며 "당시(지난 7월) 변 전 실장과의 통화는 1분 47초 동안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청탁 압력을 느꼈느냐'는 질문에도 "썩 기분좋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끊어버린 것이 아니냐. (변 전 실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이라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 이 나이(73)에 누구 높은 사람을 쳐다볼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신씨 사건은 학력위조서 비롯된 권력형 비리"

검찰 변양균·신정아 구속기소

신정아(35)씨와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서부지검은 30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은 학력위조에서 비롯된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가 허위학력으로 대학 교수로 임용돼 지식기반사회의 근간을 훼손했고 한국 최대의 문화예술제인 광주비엔날레의 감독으로 선임돼 문화예술 인프라에 큰 상처를 입혔다.

고위 권력자인 변 전 실장은 신씨를 출세시키기 위해 이런 비리에 대부분 개입, 국가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씨가 사회적 신분을 상승시키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데 제3의 고위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해왔으나 다른 고위인사의 개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비리 혐의로 변 전 실장과 신 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신씨를 교수로 임용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은 변 전 실장이 예산 특혜를 미리 제의했고 대학 재정확충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입건하지 않았다.

또한 성곡미술관에 뇌물성 후원금을 낸 삼성, 엘지, 현대기아차, 산업은행, 대우건설, 파라다이스그룹,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포스코 등 10개 기업도 메세나(문화예술지원) 활동이 위축될 우려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신입·경력 행원모집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비전을 창출할 참신하며 열정적이고 능력있는 인재를 모십니다.

1. 채용예정 인원 및 분야

채용분야	채용인원	비 고
영 업	0명	해당학과 전공자 및 관련자격소지자 우대
세무·회계	0명	
채권관리	0명	

2. 전형방법 : 서류전형 → 면접
3.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
※ 당행 양식 → 홈페이지(www.moodeungbank.com)를 참조하고 특히 자기소개를 구체적으로 작성바람.
② 졸업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③ 자격증사본, 경력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접수방법 및 기간
①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② 접수기간 : 2007. 11. 15 (목요일) 17:00까지
③ 접수 및 문의처 : 당행 총무과 (062-223-5506)
5. 합격자 발표 : 개별 통지.
6. 기 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정다운 은행 친절한은행
무등저축은행
㊞501-014 광주시 동구 충장로 4가 29-1.
(담당자 : 최낙래, 전화 : 223-5685)

사 원 채 용 공 고

(주)남흥건설에서는 제2의 도약을 위해 능력과 패기를 갖춘 새로운 인재를 찾습니다.

■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분야	인원	응시자격	비 고
총무, 관리	00명	- 종합건설업 총무, 관리부 전반적인 업무 유경험자	경력자 우대
주택분양	00명	- 주택분양사업 경력자(기획, 분석)	〃
토 목	00명	- 토목 분야 유자격자	〃
건 축	00명	- 건축 분야 유자격자	〃
조 경	00명	- 조경 분야 유자격자	특급기술자 우대
전 산	00명	- 홈페이지관리, 전산운용(DB작업 유경험자)	경력자 우대
비 서	00명	- 임원실 비서 업무	〃

■ 채용조건
○대졸(관련학과)이상,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영어/중국어 능통자 우대,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자

■ 접 수
1) 기간 : 2007년 10월 27일(토요일)~2007년 11월 03일(토요일)
2) 방법 : 홈페이지 및 우편접수
① 홈페이지 : http://nhcon.co.kr
② 주 소 : 광주 광역시 남구 서동 111-85 (주)남흥건설
3) 제출서류
① 이력서(사진필) - 응시분야, 긴급연락처, 희망연봉 기재
② 자기소개서
③ 경력증명서
④ 각종 증빙서류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전형방법
1) 서류전형 - 합격자발표 : 2007년 11월 16일(금요일 예정), 개별 통지
2) 면접시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3) 신체검사(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

■ 기 타
○문 의 처 : 총무부 인사관리 담당자
○전화번호 : 062)600-2693

(주)남흥건설

금당부동산
☎ 223-7400 핸 016-632-5659
(위치 : 충장로 5가 4거리 코너 2층)

투자
·우주발사기지, 고흥군 봉래도 주거지역 답300평 7천만원
·사합, 전원주택지, 남평검찰소부근, 그린벨트 1640평 주택있음, 2억
·나주시 봉황 혁신도시 부근 주택있고 대지390평 5400만원
·다세대부지 산수동오거리 대지198평 7세대허가필 담보 2억6천 매도 3억3천

매도·교환
·운암동 벽산 블루밍 아파트 46평 내년 8월 입주, 계약금을 2,500만원 납입했고, 현금 5천만원 더해서 교환원, 매도 3억3백
·곡성읍 서계리 광주에서 20분 병담전원 주택지 483평 7500만원 교환가
·금남로5가 4층건물 대지14 건평44 전세 4400만원 월95만원 매도1억9천
·담양군 추월산 별장용가든 대지371 건평100 은행1억 교환가 2억4천
·전대후문 대지50 건평120 일부는 공실 전세 8500만원 월 230 매도 5억5천

감정가이하
·화순군 능주면 소재지 최고상권 대지 266 건평412 감정10억이상 매도 7
·충장로4가 3층건물 대지35 은행1억 공시가 3억7천 매도 3억6천
·양동 상가·목욕탕·여관 대지139 건평 459 감정 11억선 매도 6억6천

구합니다
부동산의 매매·교환·개발·건축 등의 각종 물건을 구하며 신속히 처리해드립니다.

함께 일합시다
함께 하실 분을 모십니다. 혼자서는 미약하지만 함께하면 무엇이든 못 이루겠습니까. 손잡고 함께할 분을 모시오니 찾아주시면 합니다.
-금남로 5가 우리은행과 엔타시네마 사이-

급매
국도변
♣나주·남평역 인근
♣남향투자 최적지
♣선산 최적지
♣22,353㎡ (7,000평)
♣주인직접 (평당3만)
♣1000평 2000평 (분할가능)
010-7704-0052

급매
태양광 발전소 및 연수원 예정부지
◉전남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
◉관리지역 임야 85,950㎡
◉분할가능, 정남향
◉전력380kw 설치됨
◉매매가는 상담후 결정
연락처
062)236-0764
010-6889-7100